

■ 광주 새 산단 조성 어디까지 왔나

내년 첨단2단계 62만평 분양 일단 숨통

진곡 산단 58만평 2013년 완성 큰 기대 '빛그린' 보상지연... '평동 3차' 타당성 조사

현재 광주지역에 가동중인 8개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률은 100%에 달하고 있다. 하남·송암·본촌·소촌·평동·첨단 등 광주지역 8개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면적은 총 1387만4000㎡이며, 이곳에는 224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본촌산단의 경우 76만3000㎡의 공장용지에 143개 업체가 입주해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남산단도 450만7000㎡ 용지에 957개 기업이 입주해 이미 포화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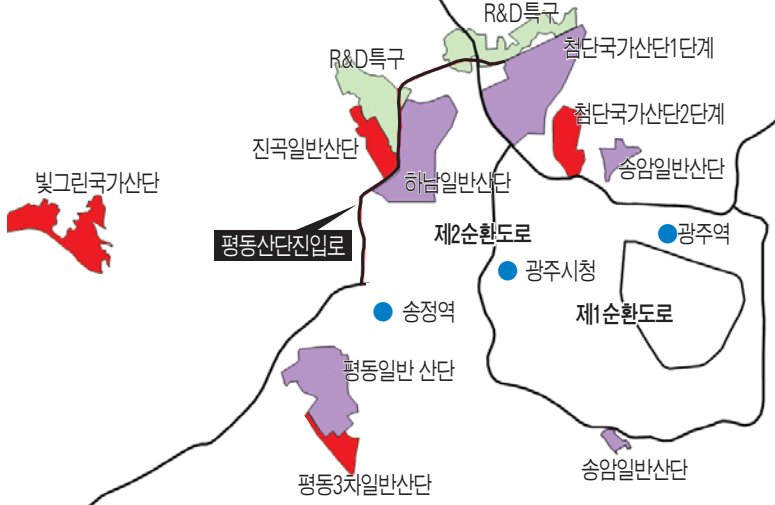
8개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은 90%를 훨씬 웃도는 등 광주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

◇준공 연기된 첨단 2단계 산단도 인기=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근 공사를 마무리 한 첨단 2단계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도 업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첨단 2단계 산단은 첨단제조업과 디지털 가전, 첨단부품 소재, 광산업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예초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

이었던 첨단 2단계 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012년 8월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아직 분양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준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총 739만1000㎡의 공장용지 중 584만1000㎡ 장기 임대용지는 이미 100% 분양이 완료됐다. 준공 연기로 인해 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은 미뤄지고 있지만,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분양공고도 시작되면 총 155만1000㎡의 분양용지도 이른 시간 내에 동나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3개 산단 조성 또는 추가 계획 중=광주시 도시공사가 시행중인 광주광산구 진곡산단은 지난 6월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7월 공사에 착공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총 191만1000㎡ 부지의 진곡산단 내 공장용지는 전체 면적의 56.6%인 108만2000㎡에 이르고 있고, 분양시기는 오는

■ 광주지역 신규조성 산단 위치(백간색)



2013년 하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공동산업단지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착공 시기가 예초 2009년 9월에서 2013년 3월경으로 늦춰졌다.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을 경계로 총 408만1000㎡(광주 185만6000㎡·전남 222만5000㎡) 부지에 조성되는 빛그린 국가산단의 광주지역 내 공장용지는 113만4000㎡에 달한다. 총 면적 중 61%에 해당된다. 유치업체들은 광산업, 디지털 정보 가전 산업, 자동차산업, 첨단부품 소

재산업, 생물·의약산업, 신소재 산업 등이다. 빛그린 산단은 내년 7월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밖에 광산구 평동에 20만㎡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벌이고 있다. 평동산단 단지는 지난 1995년 8월 조성된 뒤 지난해 11월엔 2차 산업단지가 준공됐지만, 입주 희망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해 최근엔 공장 부지가 바야기 나면서 추가 공장용지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지역 8개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이 100%에 달하면서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 진곡·고룡·오선·하남동 일원 191만1000㎡ 부지에 새로 조성되는 진곡산단이 지난 7월 착공돼 공사가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F1·SOC사업 국비 확보하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늘 서울서 간담회

전남도의 '국비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1일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전남 국회의원 12명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고 반영된 사업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에 견줘 526억원이 늘어난 7조 330억원의 국비 예산안을 확보했지만 핵심 현안으로 추진중인 상당수 사업 예산이 미반영돼 이대로라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F1 대회 작자폭을 줄이기 위한 개회권료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300억)는 전액 누락됐고 여수박

람회 SOC 예산도 건의액(1조874억)의 78%(8505억)만 반영된 상황이다. 열악한 전남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연륙·연도교 등 신규 SOC 사업(19건)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FTA를 앞두고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예산(720억)이나 첨단수출원예단지(177억)도 전혀 누락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0·26 정치권 빅뱅

'안철수 신당' 뜰 땐 파괴력

심흔들리는 정당정치
 텃층·대선 구도 급변
 허범야권의 진로는

안철수 지지율 다자대결서도 박근혜 앞서
 정치권 헤쳐모여... 총·대선관 뿌리째 흔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승리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를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통합의 움직임이 거세짐과 함께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제3당 출현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야권에서는 총·대선 패배를 막기 위해 쇄신 논의가 본격화됨은 물론 현 이명박 대통령을 부정하는 기류가 노골화되면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불허' 총선 구도=여야 모두 당내·외로 변화의 태풍에 맞닥뜨렸다. 당초 내년 총선거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맞대결 구도에 기타 정당들이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망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해지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가 맹위를 떨치면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의 야권 통합·연대가 총선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구도가 휘청인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에서 '안철수 바람'이 일면서부터다. 더욱이 전부 '안철수 효과' 때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안 원장이 지지하는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자 이 바람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급기야 제 3당 이른바 '안철수 신당'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 원장 주변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안철수 바람'이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되고 야권의 통합이 지지부진하다면 신당 창당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이

실현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헤쳐모여식'의 정치권 빅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박근혜 대세론='박원순 승리'의 최대 피해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다. 견고하게 4년여를 유지해온 대세론이 흔들리게 된 때문이다. 반면 안철수 대망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는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안 원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전국 성인남녀 3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포인트) 결과, 26.3%를 얻어 박 전 대표를 0.2%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선두로 올랐다. 안 원장이 양자구도에서 박 전 대표를 이긴 경우는 많았으나 다자구도에서 선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여당에는 충격적이다. 만일 박 전 대표가 더 흔들린다면 대안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분당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전망이다.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충격에 빠졌다. 야권 대표 주자였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자였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등의 존재감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 전체를 보면 야권 약세였던 대선구도를 흔들었을 뿐 아니라 야권의 전체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안철수 대망론은 기존 총·대선 구도를 뿌리째 흔들었지만 야권에는 '대선 승리'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원하게, 부패행위는 깨끗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110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부패신고 1398

빛日만평

- 김중두

'선거민심' 파악이 아직도 안되신다